

# 광주 '녹색아파트' 뿜는다

## 612개 단지 전기·도시가스·상수도 감축량 비교

### 市, 전국 최초...연말 3100만원 시상

광주시가 탄소배출량 감축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아파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광주시는 16일 "주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탄소배출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주거 공간에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광주지역 6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가 아파트 단지 중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기·도시가스·상수도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저탄소 녹색아파트로 선정된다.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을 위해 3천1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문제 해결의 전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광주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 같은 주민참여시책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저탄소 녹색생활 확산과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펼치기 위해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아파트 협약체결 및 빚고을기후지킴이 다짐대회'를 연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시,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지회가 참여하며, 향후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참여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지난해 초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 빚고을기후지킴이 1천510명이 중심이 돼 발족한 민·관 합동기구다.

한편, 광주시는 온실감축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에는 기업체, 대학, 대형 마트 등 90개 기관이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광주그린액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과 완결되게 일을 처리하는 만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범죄 개연성이나 의혹이 있어도 사건을 종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죄 징후가 농후하다면 증거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해 검·경 등 수사기관이 밝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교육계 범죄징후 땀 증거 없어도 수사 의뢰"

#### 박준모 감사관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 징후가 농후할 때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로는 처음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이 된 박준모(55) 전 부산고검 검사는 16일 교과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는 독립관청인 검

### '헉!' 성형수술 내 얼굴이 TV에...

#### 광주 20대 여성, 성형외과 원장 고소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성형수술 전 얼굴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것도 수술을 맡은 병원장이 홍보를 위해 TV나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다면...

광주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허락없이 (내) 얼굴 사진을 TV와 인터넷상에 올렸다"며 광주 모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광주 시내 모 성형외과 J(38)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2008년 8월 코를 성형한 A씨가 회사 동료에게서 황당한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2월. "노란 모자이크 처리된 너의 성형 전·후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고 이곳저

곳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더욱 A씨를 놀라게 한 것은 지난 2009년 8월 광주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J원장이 출연, 눈만 모자이크 처리된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사례로 들며 성형수술을 설명하는 장면이 방송됐고,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

A씨는 고소장에서 "성형 전후 사진이 인터넷과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돼 얼굴을 들고다니 수가 없다. 회사를 사직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단골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해줘서 동의가 이뤄진 줄 알았다. 부하직원과 다툼이 있어 고소까지 간 상황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해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고객정보 유출한 업체

#### 보안 소홀 첫 사법처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정보를 유출시킨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고자동차거래사이트인 B사 대표 김모(32)씨와 내비게이션 업체 B사 대표이사 이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 꽃샘추위 녹인 위문잔치

### '아리랑 봉사단' 광주 도금동에서 노래 공연 봉사

### '사랑나눔'은 공연 뒤 따끈한 짜장면 한 그릇씩

"우리 대문마는 누님들은 모두 예뻐요, '아이고, 이렇게 신나고 고마울 수가.'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16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남구 도금동 마을회관 앞마당. 백발의 노인사, 간편한 옷차림의 주민 100여명이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수, 마술사, 직장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아리랑봉사단'과 30여명으로 꾸려진 '사랑나눔' 회원들이 주민을 위해 준비한 '위문공연'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앞 테이블에는 떡과 고기, 술이 차려져 있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5분 가까이 기다렸을 까. 각설이 복장을 한 남궁철주(50·당장)씨를

비슷한 10명의 '아리랑 봉사단'이 나타났다. 봉사단이 이날 준비한 것은 노래자랑과 마술 공연, 각설이 공연 등. 단원들이 모대에 오를 때마다 주민들은 울고 웃었다.

아리랑봉사단 소속 트로트 가수 김선정(여·45)씨가 자신의 노래 '짜장'을 부르자 3~4명이 일어나 어깨를 들썩였고, 각설이 복장을 한 남궁씨가 무대에 올라 "우리 누님들은 다 미인"이라고 외치자 모두 배꼽을 잡았다.

2시간 가량의 공연이 끝난 뒤에는 사랑나눔 회원들이 즉석에서 만든 짜장면이 테이블에 올라왔다. 회원 30여명이 2만원씩 보태 준비한 것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엔 입에 문 노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16일 광주시 남구 도금동 마을 회관에서 열린 '위문공연'이 끝난 뒤 주민들이 봉사단이 직접 만들어 준비한 짜장면을 먹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연을 지켜본 이연기(77)씨는 "날씨까지 추운데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고 고맙고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봉사에 나선 이들은 "노래 한 곡, 짜장면 한 그릇으로 행복을 선사할 수 있어 우리가 더 기쁘다"고 말했다. 저마다 특기를 가진 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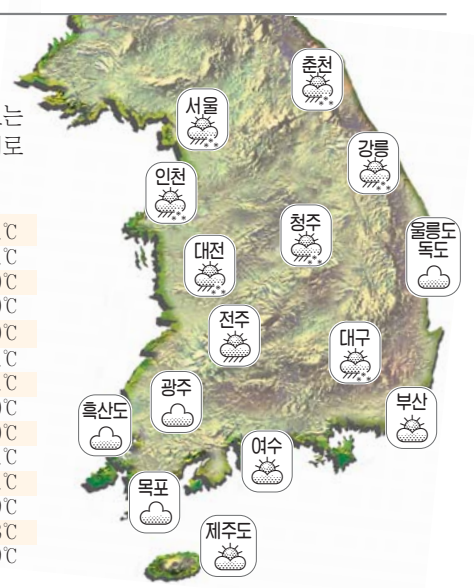
랑봉사단 단원들은 올해로 10년째 광주·전남의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나 소외지역을 돌며 위문공연을 하고 있으며, 사랑나눔회는 7년째 이웃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1분 해질 18시 41분 달돋이 06시 15분 달질 20시 08분

#### 봄... 어디쯤 왔을까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려지겠다.



광주	흐림	-2/11℃
목포	흐림	-1/11℃
여수	구름맑음	1/10℃
완도	흐림	-1/10℃
구례	흐림	-5/10℃
애남	흐림	-4/11℃
장흥	흐림	-4/11℃
고흥	구름맑음	-2/10℃
순천	구름맑음	-3/10℃
영광	흐림	-3/11℃
진도	흐림	-3/11℃
전주	흐리고 한때 비	-3/9℃
남원	흐림	-5/8℃
옥산도	흐림	3/9℃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1.5m	☀	보통	관심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	관심	낮음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3:02	08:1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여수	15:13	20:2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09:56	03:4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22:13	15:5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4/9	1/15	3/15	3/10	4/11	3/12

### 꽃샘추위 절정...진눈깨비 까지

#### 광주·전남 아침 영하 '뚝'

잡힐 듯하던 봄기운이 온전히 내려앉으려면 아직 이른가 보다. 17일 광주·전남은 꽃샘 추위가 절정을 이루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다가 점차 흐려질 것"이라고 16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영

상 1도로 전날보다 더 떨어져 추웠으며,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전날보다 낮았다. 18일 광주·전남에는 비가 예상된다. 산간지방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아래 변동폭이 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허가 지방분해 주사

#### 2만9천명분 전국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포스파티딜콜린(PPC) 성분 화장품을 지방분해 주사용으로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 소재 A업체(대표 석모씨·44) 등은 지난 2006년부터 PPC가 함유된 엘플(유리 주사용기)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후 지방분해 주사제로 사용하도록 전국 병의원 160여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 지방분해 주사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탈', '리포탈린', '비시에스(BCS)', '리포탈', '이노-티디에스 트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다. /연합뉴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 소재 A

**아자없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탈취, 방수, 방충]

트라이슈머 시트방수로 완벽한 단열효과까지!!

10621511-0444

**2010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50%**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

T. 080-7272-7000